

스위스 NGO, 동식물 특허에 대한 반대 표명

30여개가 넘는 생태학자, 농민, 연구자 및 소비자 관련 스위스 단체는 생명체 및 식물에 대한 특허에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 스위스 특허법의 개정 내용은 산업계만을 위한 것이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

지 난 10월 15일, 베른의 기자회견에서 시민 단체들은 스위스 정부로 하여금 식물, 동물 그리고 줄기세포 및 유전자를 포함한 인체는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연구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였다.

Greenpeace와 Pro Nautra와 같은 NGO 회원들은 기계, 전기 장치 혹은 화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는 적절한 것이지만, 식물 및 동물은 같은 방식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견과 발명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하며, 유전자와 유전적 자원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전자는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하며, 생명체에 대한 특허는 특정 연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는 특허가 스위스에서 일부 종류의 의약품과 다른 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NGO 회원들은 스위스의 현 특허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혁신은 윤리강령을 희생시켜서 생명공학 혁신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인 Interpharma은 오히려 개정법이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스위스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보호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진출 미국기업, 75%가 지재권침해당한 경험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국의 기업기업백서(2004년판)'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90%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의 관념의 결여를 문제시하고, 약 75%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본, 법률의 외국어 번역통일

기업활동에 대한 대외적 설명(IR)보다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사내의 의사통일이라는 면이 강함.

일 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작업 그룹은 민법이나 형법 등 기본적 법률을 중심으로 통일화된 외국어번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英譯부터).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의 통일은 국제거래의 원활화나 대일투자의 촉진에 필요하며 경제계로부터 강한 요청이 있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법정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 점에서 정부에 의한 법령의 영역이 요구되었다.

작업그룹은 12월 내각관방에 모든 성청의 직원이나 학자들에 의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대상법령의 선정이나 영역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법문에 사용되는 「~해야 한다」는 「shall」, 「~을 준용한다」에는 「shall apply to」등의 일람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이러한 규칙을 정해 요청이 많은 기본법이나 지식재산 관계법, 경제 관계법, 행정절차 관계법에 대해 번역을 완성시킬 예정이며 공표는 1개의 성청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여 일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장래에는 중국어나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법률이나 정령, 통지의 외국어 번역에는 민간이나 소관 성청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행하여 각각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되고 있다. 동일한 단어나 어구에 대한 번역어가 혼재하여 혼란한 예가 많아 국내외로부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작업그룹에 의하면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외국기업과 계약할 때, 민사소송법의 통일화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외국법에 기해 분쟁해결 절차를 정하도록 압력을 당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교통사고에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상해죄에 대해서 「업무」를 「business」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근무중」의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오해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써 동 개혁본부의 국제화검토회내에 작업그룹을 마련했다. 더불어 일본의 세제나 각종 거래와 관계되는 법제도를 외국기업이 이해, 신용하여 해외로부터 보다 많은 자본이나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백 서의 발행은 금년이 6번째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미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경영 상황 외, 미·중 양국 관계 등 정치적·외교적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문제점으로써 미국 기업의 90%

가 「지식재산권이 대부분 지켜질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75%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전개상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식재산권침해를 들고 있다.

제공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발특2004/11